

돌고 돈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처리될까

19·20대 국회서도 발의... 여야 이전에 번번이 실패 興 '박덕흠 논란'에 제정 추진... 국민의힘도 처리 목소리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논란과 관련, 21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로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9·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의원이 탈당하면서 정적 회생양이라고 호소하는 등 오만하고 무책임한 민낯을 드러냈다"며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이해충돌 논란의 공범이며, 건설회사 회장 출신으로 가족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박 의원을 국민의힘이 네 번 연속 국토위에 배정하고 간사로 선임했다"면서 "국

민의원 지도부는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 당내 조사 특위를 구성해 직접 제명하고 박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라"고 압박했다.

허영 대변인도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덕흠 의원에게서 MB의 향기가 난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박 의원의 탈당은) 사익을 위해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꼬리부터 자른 것이다. 이제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박덕흠 의원을 향한 부장·비리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다스는 형님(이상득)과 처남 김재정이 함께 설립해 30년이 넘도록

경영해온 회사"라며 자신과 관계가 없었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를 뿐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는 내용의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내는 등 당 소속 의원들의 관련법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회피·기피,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낸 상태다. 지도부는 법안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제척과 기피 제도와 관련해 국회의원은 일반 공직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척·회피 제도 수위가 높아지면 판사·검사 출신은 전문성이 있음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활동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목소리를 내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이해 충돌 소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감 기관 장관·이사장 출신인 도종환·이재호·김성주 의원, 포털사이트 네이버 출신으로 카카오 문자 논란을 일으킨 윤영찬 의원의 이해 충돌 소지를 먼저 해소하라는 주장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24일 "이분들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해충돌법의 핵심"이라며 "이분들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법안 추진에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19대 때는 정부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제외된 채 통과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5·18 관련법 당론 추진 내달초 결정

추석 연휴 뒤 의총 소집

5·18 관련법의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 추진이 오는 10월 5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일 비대면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같이 결정했다. 비대면 의원총회에 대한 당 규정이 없어 5월 관련 법의 의총 안건 처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10월 5일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역사왜곡특별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법안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18 왜곡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 당론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이번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진상조사위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4·15 총선 재선신고 당시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당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에 올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종인 "야권에 4~5명 대선후보 희망"

방승기자클럽 토론회... "나는 대권에 관심 없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과 관련 "야권에서 대선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내딛 분 있는 게 틀림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그분들이 어떤 비전을 국민에게 나타낼 것인지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당을)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생각이 없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 한다"면서 "특정인이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대선후보 추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 없다"고 일축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와 관련해서는 "조선도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조선 출신 시장이 나오면 민주당이 구청장·구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이들을 장악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엔 "조선이나 재선, 삼선이나 그 점에서 크게 구분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가 부대와 국민의힘은 직접 연관이 없다"면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집회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코로나19 시대가 아니라 평상시에 문제인 정부 규탄 집회가 열린다면 참석하겠나'라는 질문에는 "선동적 연설을 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김원이, 민주당 원내부대표 선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의 참석을 시작으로 원내부대표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당직인 원내부대표에 임명됨에 따라 전남도 예산확보 및 정책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전망이



다. 김원이 의원은 "전남지역 의원, 보건복지부 위원 중 유일하게 원내부대표의 중책을 맡았다"면서 "원내에서 전남지역 예산 및 정책현안 해결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발로 뛰겠다"며 원내부대표 임명 포부를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정훈,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용 유도 법안 발의

글로벌 주요기업들의 RE100 캠페인(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공공기관들이 단계적으로 RE100을 달성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의원은 24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의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RE100 단계적 의무화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정훈 의원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PPA, 녹색요금제 등 재생에너지 인증이 가능한 소비구조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소비 확대에 참여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승남 "두산, 무늬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참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참여한 민간기업 중 가장 기부를 적게 한 기업은 100만원에 그부한 '두산중공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 당시,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설치됐다. 김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농어촌상생



협력기금 조성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40여개로 총액은 133억원에 그쳤다. 나이스신용평가사의 기업정보를 토대로 한 '2019년 한국 100대 기업'에서는 단 18개 기업이 참여했다. 김승남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FTA 수혜 기업의 기금 참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이스타 사태' 이상직, 민주당 탈당

"의혹 소멸하고 돌아올 것"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대량해고 책임'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24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제 개인과 가족 관련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며 "사직서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멸하겠다. 그리고 되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김홍걸·이상직 의원의 사례가 당 소속 모든 공직자에게 자성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